

# 래속질주 '쏘울' 급제동?

## 노조, 임금협상 불만 특근 거부... 오늘 재협상 주목

기아차 노조가 지지부진한 임금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크리스마스 특근을 거부하고 나서,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의 래속 질주에 급제동이 걸릴지도 모를 위기가 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8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임금 협상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광주공장을 비롯, 전 공장의 특근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는 한편, 생산 설비 공사 등 모든 공사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진전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등

연내 교섭 마무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 19일 예정됐던 주·야간 8시간 특근이 이뤄지지 않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노사가 이미 합의한 광주 1공장의 25, 26일 크리스마스 특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공장의 경우 현재 수출 계약 이후 출고를 해야하는 쏘울 물량이 2만대가 넘는 만큼, 노사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말 기아차 노사는 정규근로 8시간에 2시간의 잔업이 추가된 주야 '10+10'근무체계를 유지

하면서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생산라인을 가동키로 합의 한 바 있다.

기아차 노사는 21일에도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광주공장의 경우 크리스마스 특근을 하지 않으면 수출 계약 물량을 제때 낼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조측은 기본급 5.5% 인상, 생계비 부족분 200% 이상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기본급 동결, 생계비 부족분 200%와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한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주예정자들이 20일 광천동 e-편한세상 아파트를 찾아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 불만제로 도전

### 입주자 사전 점검

대림산업이 입주를 앞둔 광천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만 제로(Zero Defect)'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사전 점검은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진행했으며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 상태부터 거실, 방, 부엌, 화장실 타일, 발코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이들은 이날 사전 점검에서 찾아 낸 하자 사항을 대림 측에 통보하게 되며, 대림은 내년 1월 25일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림산업 김승진 부장은 "시공과정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된 품질 향상을 이루기 위한 절차"라며 "현장을 찾은 입주 예정자들 모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천96세대(111㎡ 528세대·142㎡ 292세대·164㎡ 168세대·194㎡ 108세대)의 대단지로 이뤄져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입주가 진행된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 관세체납자 해외여행시 휴대품 검사

관세청은 내달 11일부터 전국의 세관에서 관세를 체납한 모든 해외 여행자를 상대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1인당 400달러면 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 가운데 압류 대상으로 확인된 재산을 압류해 신속히 매각,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를 했으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도 관명났는데도 종종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연협뉴스

# 건설공사 상생협약체 운영 의무화 건설사 평가 기술능력 비중 높인다

국토해양부는 대·중소기업과 원·하도급 업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운영하게 하고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세부 평가 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 비율을 신설하고, 공동도급 실적 비율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에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높였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평가기준을 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체 간의 상생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찰자적 사전심사(PQ) 때 해당업체에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협뉴스

내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재무구조 배점을 줄이는 대신 기술능력의 배점 비중을 높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실제 시공 실적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으로 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 평가액 등을 합해 산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중은 종전 90%에서 75%로 축소하는 대신 건설업체의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공사 실적보다는 재무구조가 좋으면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책정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설사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협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기관주도 종목장세 지속될 듯

## 테마주보다 실적주 관심을

미국에서 연이어 들려오는 경기 지표들의 호전 소식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한해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3개월래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달러화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도 당분간 지켜보자는 쪽으로 자세를 잡는 듯하다.

달러화의 변동은 시장 국제유가나 금가격과 같은 상품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에서의 자금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달러강세의 최대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V자형 회복보다는

다. 그러나 지수의 반등으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다시금 판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의 강도가 떨어진다 면 시장의 상승 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다.

연말을 맞아 줄어드는 거래량, 지수 반등 폭의 확장 및 달러강세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수강도의 약화, 그리고 실적발표를 앞두고 모멘텀의 공백 등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대안으로 삼고 있는 종목장세는 지난주 중소형주 및 코스닥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불러왔고, 급주에도 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개별종목을 주로 공략하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보다는 최근 재차 환매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투신권을 비롯한 국내기관들이지만 연말 종목선정에 있어서 이들의 동향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겠다. 종목장세에서 주요한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적개선 및 테마는 당분간 이어

지겠지만 실적발표시즌이 다가올에 따라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펀더멘탈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테마성 재료보다는 실적전망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itr.com

**국제보청기**

본점: 서울 (02) 227-9940  
 인천점: (06) 1752-9940  
 목포점: (06) 1262-9200  
 충청점: (06) 227-9970  
 익산점: (06) 851-2422

**크루즈타고 제주여행**

**즐거움여행**

**신비의 섬 제주도 여행**

신한여행, 현대여행, WOLLA